

‘스마트폰 번호변경·해지’ 개인정보 노출 위험

변경 전 번호로 카드 사용·채무 내역 유출 정부·이동 통신사 등 안전대책 마련 절실

매년 수차례씩 최신형 스마트폰이 쏟아지고 이에 따른 번호변경·이동 및 해지 등이 빈번해지면서 사용하다 해지된 휴대폰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 및 각종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커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새로운 가입자가 기존 해지된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로 신규 개통할 경우, 해지 처리된 기존 가입자의 여러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통신사 등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광주지역 휴대폰 판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지된 휴대전화 번호는 4주간(28일) 사용을 정지토록 돼 있다. 각 통신사들은 이 기간이 지나야 신규가입 고객들에게 해지된 번호를 개통할 수 있다.

문제는, 짧은 기간 동안 고객만 바뀌었을 뿐 번호는 바뀌지 않아 전임 휴대전화 가입자가 관련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한, 동일한 번호로 개인 정보가 신규고객에게 실시간 전송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과거 번호 사용자의 카드 사

용 내역이나 채무관련 내역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가 높다.

더욱이, 대중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SNS 및 카카오톡 등 문자대화 내용을 이용해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보이 스피싱 및 금융사기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

이런 위험성은 010번호 통합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인이 여러 대의 번호를 소유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010으로 번호가 통합되면서 011·017 등 다양한 번호가 있던 과거에 비해 번호가 한정적이어서 재사용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는(40) 최근 영입용으로 알뜰폰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카드사에서 통장에 잔고

가 없어 카드대금이 미납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카드사와 거래한 적이 없는 정씨는 카드사에 문의해 보니 해지된 전 고객의 금융정보로 확인됐다. 해지된 고객이 과거 휴대전화로 금융 등 각종 서비스에 가입한 후, 통신사 이동 및 번호변경 등을 하면서 관련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번호를 새로 부여받은 정씨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다.

정씨는 의도치 않게 단, 사흘 만에 해지된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과 신용관련 정보, 생년월일, 거주 지역까지 알게 된 셈이다.

업계에선 번호이동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개인이 처리하고 지워야 하는 일이라며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번호변경 이후 은행 등에 개인정보 등을 알리는 것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책임이다”며 “통신사에서 일일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나 회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 소비자 보호원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보안문제를 고려하기보다 번호이동으로 인한 수익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금융과 관련된 정보는 자동 해지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광민 기자

수학문제 해결 능력 강화 광주수학체험센터 21일 개소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길러주는 ‘광주수학체험센터’가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동구 윤림동 광주교육과학연구원에 총면적 316㎡ 규모로 수학체험센터를 개설해 오는 21일 개소식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수학체험센터는 체험센터, 수학사이버 체험실, 수학자료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초·중·고 학생들이 보고 만지고 활동하며 수학의 실용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7·8월을 제외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용 시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초·중학생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고등학생은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학급 또는 동아리는 교육과학연구원 누리집에서 신청한 후 공문을 발송하면 된다. 주말 수학체험교실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 오전에는 초등학생, 네 번째 주 토요일 오전에는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수학체험센터 오정아 교사는 “수학체험센터는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해서 수학을 배우는 과정을 운영한다”며 “수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많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미있게 놀다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수압=삼투압’ 이론 부정확성 규명 광주과기원 김인수 교수팀, 국제학술지에 논문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김인수 교수팀은 비공극성 막(Non-Porous Membrane) 기반 수처리 공정 해석에 지난 60여 년간 널리 쓰인 유체확산 이론(Solution-Diffusion Theory)의 핵심요소인 ‘수압(Hydraulic Pressure)=삼투압(Osmotic Pressure)’이라는 이론적 가정 사항이 비공극성 막의 투과능 해석에 적합하지 않음을 실험적으로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랜 기간 비공극성 막 기반 정삼투(Forward Osmosis) 및 역삼투(Reverse Osmosis) 공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왔으며, 비공극성 막은 이온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 유체확산 이론이 수압과 삼투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막 투과특성을 해석하지 못하는 실험적 증거가 여러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부정확성의 이유를 검증하기 위해 논쟁이 있어왔다.

연구팀은 정삼투 공정에 사용되는 비공극성 막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위 가정이 옳다면 동일한 수압과 삼투압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 물은 투과하지 않으며, 염 투과는 기존 확산이론에 따라 염의

농도에 비례하여 관찰될 것이라는 가설을 변증법적 접근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수압은 항상 삼투압보다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비공극성 막에서 수압과 삼투압은 동일한 성질의 구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기존 유체확산 이론의 핵심 가정 사항이 실제 공정 해석에 적합하지 않음을 규명했다.

의도적으로 수압을 낮춰 물의 이동이 관찰되지 않는 조건에서의 수압과 삼투압의 관계를 분석해 삼투압과 염 투과가 선형적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 선형적 관계를 통해 수압에 대한 비공극성 막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면 일정 수압에서 비공극성 막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계 수압(Yield Hydraulic Pressure)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공극성 막의 적절한 운전 압력(수압)의 범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데 성공했다.

/황애란 기자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들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단체, 전두환 자택 항의 방문 “검찰 출석 불응 규탄” 화형식 퍼포먼스

‘오월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오사모) 회원들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앞에서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회고록 수사에 비협조적인 전씨를 규탄했다.

오사모 회원 22명은 이날 “5·18 학살 주범 전두환은 허위 날조된 망언록에서 자신은 피해자라는 망언을 일삼아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

다.

이어 “검찰은 전씨가 소환에 불응하면 즉각 구속 수사에 38년동안 규명하지 않은 발포 명령자 색출을 비롯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뒤 수의를 입은 전두환씨의 대형 사진을 불사르는 ‘화형식’ 퍼포먼스도 펼쳤

다.

한편 전두환씨는 회고록에서 5·18을 모욕해 지난해 4월 유가족과 5·18단체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광주지검의 수사를 받아 왔다.

최근 검찰의 두차례 출석 요구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한 전씨는 진술서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사격은 없었다’ 등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용현 기자

“양식장일 힘들다고...”

○...양식장 도리개 일이 힘들다며 화물트럭을 훔쳐 옥저도 도망간 30대가 쇠고랑 신세.

○...19일완도경찰서에 따르면 박 모씨(35)는 지난 11일 새벽 6시 45분께 완도군 완도를 화흥포항 주차장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1t 트럭(시가1,2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일이 힘들다며 4,000만원 상당의 소형선박을 타고 달아났다”면서 “이번에도 양식장에 직접한지 3일만에 같은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완도=최규욱 기자

투자 가치 좋습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거문도, 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